

특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미술교육의 의미와 역할: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현일*

한국교원대학교

The Meaning and Role of Art Education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Based on Literature Studies

Hyun-Il J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at art educators can contribute to disability studies by strategizing art practices that critically explore disability discourses in the many fields, and that art education and disability studies can address the many areas where disability and art meet, culturally and pedagogically. The interest of art education scholars in disability and the interest of disability studies scholars in art education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fields. Researchers and educators in both fields are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content in the others' areas of expertise. Thus, the interest in both fields in disability and creative self expression in general suggests a fruitful ground of this overdue and promising interdisciplinary alliance.

Key words: art education, special needs, student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studies,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 교신저자: 정현일, hijung0524@knue.ac.kr

** 이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3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Received 12 November 2013; Accepted 10 December 2013; Published 30 December 2013
2014. Institute of Brain based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 서론

오늘날 학문은 점차적으로 간학문적, 탈학문적, 학제적 접근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학문의 범의를 뛰어넘는 지식의 공유를 더 가치롭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다양한 관점의 협동을 통해 학문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특수교육은 근본적으로 학제적 접근의 한 예로써 사회과학, 인문학, 심리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의 뿌리가 결합된 학문영역이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이 다양한 학문이 접목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인문학과 같은 특별한 학문에서 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특수교육 분야에 대해서 많은 학문이 관심으로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술 교육은 오래전부터 특수교육 연구와 교육실천의 핵심적인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Wilson, 2003). 예를 들어, 미술 교육을 통한 장애우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미국의 미술교육과 대학교수인 제니퍼 아이젠하워(J. Eisenhauer, 2008)는 특수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초대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미술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아이젠하워의 특수아동에 대한 논문연구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아이젠하워, 과이(D. Guay), 브랜디(D. Blandy) 등 많은 미술 교육학자들이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연구와 성과물은 아직 초보적인 실정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아동을 대상으로 한 미술교육의 이론적 연구,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교육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특수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특수교육의 실태, 미술 교육과 특수교육의 연관성, 특수아동을 위한 미술 교육의 필요성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의 개념,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특수교육과 미술교육과의 연관성 등 미술 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술 교육 학자들의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미술 교육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NAEA(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e)에서 발간하는 Art Education과 Studies in Art Education의 미술교육 학회지에 출간된 논문들 중에서 장애(disabilities), 장애교육(disabilities studies),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과 같은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국외 학술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서 검색된 17개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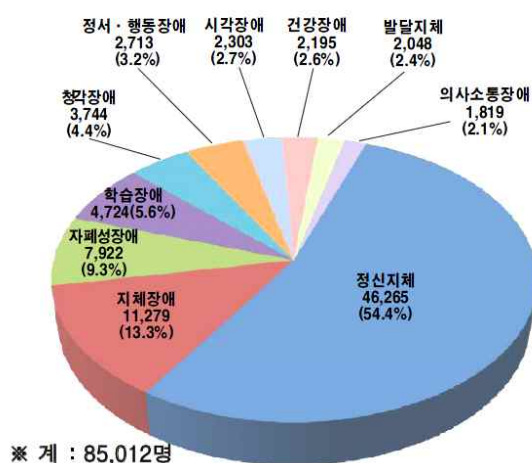
III. 미술교육과 특수교육

1.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황을 논하기에 앞서 ‘장애(disability)’의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언제부터 장애라는 용어를 써 왔는지 그 역사를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장애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사회적 장벽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동체의 정상적인 삶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장애의 역사에 대해서 마시아 리옥스(M. Rioux, 2001)의 『정의에 대한 굴복(Bending Towards Justice)』이라는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리옥스에 의하면, 1700년대 중엽에 처음으로 장애에 대한 공식적인 문헌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 시기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독립(1776년 7월 4일)되기 전이며, 또한 캐나다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 문헌에 의하면 “그녀는 장애를 지닌 사람들, 즉 당시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에서 생겨났던 식민지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던 이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배에 싣었던 영국의 관습을 묘사하고 있다.”에서 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장애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지 약 300년이 지난

1990년 미 연방의회는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4천 300백만(43 million)명을 일반 사람들과 같이 평등한 교육과 삶 등을 보장해주기 위한 무차별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장애를 가진 미국 사람들의 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공공장소의 자유로운 출입, 장애고용, 장애를 위한 공공 편의시설과 교통, 소통을 위한 번역 서비스를 장애우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g. 1> Primary status of disability studies in 2012 출처: 2012 특수교육 통계

우리나라의 상황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85,000명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애영역별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인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학생들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앞서 언급한 10개의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은 장애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인지체 장애로 약 54.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리고 2007년도에 약 66,000명이었던 장애우들이 5년이 지난 2012년에는 85,000명 정도로 장애우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표 1 참조). 더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장애우들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보다도 더 많은 장애우들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한 연구

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들에서 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약 85% 이상은 행동장애, 학습장애, 운동장애, 감각장애 등 크고 작은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Guay, 1994).

<Table 1> Number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연도별 장애영역별 학생수											단위 : 명(%)
연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인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전체
2007	2,292 (3.5)	2,864 (4.3)	36,041 (54.7)	7,739 (11.7)	7,665 (11.6)	1,185 (1.8)	6,982 (10.6)	1,142 (1.7)	-	-	65,940 (100)
2008	2,103 (3.0)	3,073 (4.3)	40,222 (56.3)	8,788 (12.3)	7,681 (10.7)	1,236 (1.7)	6,754 (9.4)	1,637 (2.3)	-	-	71,484 (100)
2009	2,113 (2.8)	3,385 (4.5)	40,601 (54.0)	9,659 (12.8)	3,537 (4.7)	4,647 (6.2)	1,324 (1.8)	6,526 (8.7)	1,945 (2.6)	1,450 (1.9)	75,187 (100)
2010	2,398 (3.0)	3,726 (4.7)	42,690 (53.6)	10,367 (13.0)	3,588 (4.5)	5,463 (6.9)	1,591 (2.0)	6,320 (7.9)	2,174 (2.7)	1,394 (1.7)	79,711 (100)
2011	2,315 (2.8)	3,676 (4.4)	45,132 (54.6)	10,727 (13.0)	2,817 (3.4)	6,809 (8.2)	1,631 (2.0)	5,606 (6.8)	2,229 (2.7)	1,723 (2.1)	82,665 (100)
2012	2,303 (2.7)	3,744 (4.4)	46,265 (54.4)	11,279 (13.3)	2,713 (3.2)	7,922 (9.3)	1,819 (2.1)	4,724 (5.6)	2,195 (2.6)	2,048 (2.4)	85,012 (100)

※건강장애 2005년 이후, 의사소통장애 2006년 이후, 발달지체 2009년 이후 조사 실시

출처: 2012 특수교육 통계

2. 특수교육에 대한 미술교육의 관심

미술 교육은 1930년대 이후로 장애와 학습장애 등에 관심을 가져왔다(Blandy, 1991). 이와 같은 관심은 1970년대까지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미술 수업에서 달성해야 될 일반적인 목표와 관련이 있었고, 그 후로는 언어와 치료(therapy)의 성격이 접목된 특수교육이나 미술치료와 관련이 있다(Eisenhauer, 2007). NAEA에서도 특수장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0년 동안 특수교육을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이 출간되었다, Andra Nyman and Anne Jenkins' (1999)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and Beverly Gerber and Doris Guay's (2006) book Reaching and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through Art. NAEA

에서 발간한 책들 중에서 거버와 과이의 책은 베이 트셀러 중의 하나이며, 특수교육 담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저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Gloria Pappalardo(1999)에 의하면, 특수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은 바로 그들도 정상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정상인들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한계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Clements(1999)는 특수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가르칠 때 교육과정이나 시스템 중심의 접근 보다는 무엇을 교육내용으로 선택할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들로부터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를 판단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접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사회의 중요한 한 구성원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에 대한 공헌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똑같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에 많은 귀중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극복) 위해서 미술 교육자들은 장애 미학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미학(disability aesthetic)이란 장애에 대한 자기표현으로 미술교육 측면에서 장려되고 있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시각적 언어이다. 그러므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미적 갈구(aesthetic anxiety)는 비평적 미학을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Blandy, 1999). Blandy는 1991년 발표한 자신의 논문에서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장애자로서의 삶에 대한 경험을 표현한 자기 옹호적(self-advocates)이거나 또는 자기 지시적인(self-referential) 예술작품을 소개했다. 예를 들자면, 행위예술가인 체리 매리 웨이드(Cheryl Marie Wade), 사진작가인 데이비드 헤베이(David Hevey), 화가인 어니 페피온(Ernie Pepion), 만화가인 존 칼라한(John Callahan) 등이다.

Alice Wexler (2005)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에 깊은 연관성이 있는 신체적·정신적 기형의

양면적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장애관정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창작된 미술 작품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그녀는 장애우들이 어떻게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불가사의한 장면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론과 역사적 관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웨슬러는 장애우들의 창의적 미술작품들이 왜 장애인 차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다. 웨슬러에 의하면, 오랜 기간 동안 장애우로 취급되었던 주디스 스캇(Judith Scott)과 래리 비소넷(Larry Bissonnette)의 미술 작품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시작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Jennifer Eisenhauer (2007)도 블랜드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인 장애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술 교육과정에 장애우들의 문화와 미술작품을 다루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이젠하워는 문화적 측면에서 장애우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작가들을 소개함으로써 장애우에 대한 사회 정치적인 올바른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그녀는 매리 듀피(Mary Duffy) 페트라 쿠퍼스(Petra Kuppers), 캐리 샌다흐(Carrie Sandahl)와 같은 행위예술가들을 “장애를 가진 예술가들(artists with disabilities)”이 아닌 “장애 예술가들(disability artists)”로 소개한다. 그녀가 말하는 “장애 예술가”란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차별주의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낀 감정들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Eisenhauer, 2007. p. 11). Eisenhauer (2008)는 또한 그 동안 미술 교육에서 간과되어져왔던 정신병에 대한 담론에 초점을 맞춘 논문을 발표했다. 아이젠하워(2008)에 의하면, 그 동안 정신병 환자의 미술적 표현은 부정적, 부정확, 정형화된 생각으로 관주되어져 온 반면에, 미술 교육에서는 정신병 환자가 시각 문화를 표현하는데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었는지 또는 아닌지에 대한 일관된 논리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지난 몇 년간 미술과 시각문화 교육의 학자들은 특수교육 분야와 연관된 연구를 많이 해오고 있다(Caraballo & Rodas, 2008).

3. 미술과 시각문화에 대한 특수교육의 관심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미술과 시각문화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각문화교육과 특수교육과의 관계는 특수교육이 처음 연구되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랜 동안 역사를 같이 해오고 있다. 예를 들면, 특수교육 독서『The Disability Studies Reader』의 첫 번째 논문집은 시각문화 연구 분야에서 아주 잘 알려진 니콜라스 미르조프(Nicholas Mirzoeff)와 미술작품의 시각성을 논하는 내용을 연구에 포함했다. 특수교육은 개개인의 주관성과 자기표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아직까지는 물론 시각적인 표현보다는 글로 표현된 것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예술적 표현과 비평적 시각문화가 특수교육 분야에 가치 있는 공헌을 할 것이라고 점점 더 확신하고 있다.

특수교육 분야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저서 중의 하나인 『특수교육 편람(Handbook of Disability Studies)』을 살펴보면 미술과 특수아동의 그림, 특수교육에서 문화적 표현, 사진예술에서의 시각적 표현 등 여러 단원에서 미술적 표현의 중요성과 미술 활동을 통한 물성체험을 다루고 있다. 2006년도 데이비스(Davis)의 저서인 『특수교육 독서(The Disability Studies Reader)』의 두 번째 수정판(2nd Ed.)은 특수교육 학문이 미술적 표현, 시각문화, 행위예술 등과 연계된 미술과 미술교육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저서의 여러 단원에서는 미르조프(Mirzoeff, 2006)의 “맹인과 예술(Blindness and Art)”에 대한 연구와 조지아나 클리지(Georgiana Kleege, 2006)의 “맹인과 시각문화(Blindness and Visual Culture: An Eyewitness Account)”에 대한 연구 내용을 통해 미술 활동이 특수아동의 정신적·심리적 치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Roman & Frazee(2009)는 특수교육 논문『The Review of Disability Studies』에 2008년 1월부터 3월까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과 전문 예술가들을 초청한 특별한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이 행사는 지역 사회의 주민들, 학자들, 유명한 예술가들 등 일반 대중들이 장

애우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그 행사에서 장애 예술가들과 일반 예술가들은 서로 다른 예술에 대한 관점, 미술창작의 동기와 아이디어 창출, 미술창작 과정 등이 어떻게 다른지 혹은 어떤 관점이 같은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술 교육 학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흥미, 반대로 특수교육 학자들의 미술을 포함한 시각문화에 대한 관심은 두 학문 사이의 간학문적 연구와 실천을 촉진하고 있다.

IV. 특수교육을 위한 미술 교육의 실천

1. 특수교육에 대한 미술교육의 정책적 지원

1974년 6월에 조세프 케네디(Joseph P. Kennedy Jr.) 재단은 지능 발달이 늦은 아동들을 위한 국제 예술 세미나에 연구비를 지원했다. 이 일로 인해서 정신 지체자들을 위한 교육에 대한 예술의 접근 가능성이 국가적인 관심으로 발전되었다. 그리고 조세프 케네디 재단과 예술교육 연맹에서 후원하는 학회가 더 많이 열리게 되었고, 그 결과 특수아동을 위한 전 국가적 차원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국립위원회가 만들어졌다(Gair, 1978). 그 협회가 국립 예술기관, 장애인협회, 일반교육기관, 사립재단 등에 소속된 전문인들로 구성된 “장애인을 위한 국립 예술협회(NCAH)”이다. 이 협회의 3가지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Gair, 1978).

- 1)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연구하여 보급하는 것
- 2) 장애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탐색과 적용 가능한 전형적인 모델을 개발하는 것
- 3) 5년에 걸쳐 매년 약 20만 명의 장애인들에게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또한 다른 장애인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특수교육을 위한 예술교육의 실천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특수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술분야는 준비가 되어있는가?라는 질문은 최근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장애인을 위한 국립 예술협회(The National Committee on Arts for the Handicapped, NCAH)”의 후원으로 개최된 학회에서 Daniel Ringelheim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제기되었다. 이 학회의 목적은 장애인을 위한 최신의 법안에 대해 예술과 특수교육의 전문가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예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실천 과정들에 대한 의미 있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2. 미술교육을 통한 특수교육의 실천 사례

미술과 특수교육 교사들은 교육적 패러다임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미술과 특수교육의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미술과 특수교육 교사들은 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에서 미술이 무한한 교육적 전략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Anderson, 1978; Arnheim, 1983).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에 시각예술을 접목한다는 것은 특수아동들에게 학문적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이고 학문을 통한 기술 습득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미술활동을 통한 자아 표현은 특수아동에게 결여된 자존감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교육활동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술과 특수교육의 융합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물이 증명하고 있다. 카터와 밀러(Carter and Miller, 1971)는 미술수업에서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두 연구자는 특수아동들에게 미술활동을 통한 자신들의 자존감 습득, 눈과 손의 협응력 향상, 정체성 함양, 자아 인식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행동지각능력을 향상시켜 주려고 하였다. 미술수업을 받은 특수아동들에게 행동지각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물을 얻었다. 또한 카터(1979)는 미술수업을 통한 학습 장애자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미술치료 수업을 받은 학생이 일반 수업을 받은

학생들보다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 우드(Wood, 1977)의 연구에 의하면, 미술치료 수업을 받은 학습 장애아들이 시지각 능력 검사(tests of visual perceptual abilities)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했다.

정서장애를 가진 특수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미술활동이 그들의 정서적 불안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미술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사고를 촉진시켜주기 위한 미술활동은 그들에게 학습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로웬펠드와 (Lowenfeld, 1947)은 읽기와 산수와 같은 공부는 학생들의 지식 습득을 위한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은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에 학생들이 어떠한 학습에 호기심을 갖게 된다면, 학생들은 그 학습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습 경험들이 유발될 것이다. 미술활동을 학습에 적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사고증진과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고, 이러한 확장된 사고는 다양한 학습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미술적 경험들은 특수아동의 자존감을 강화시켜줄 수 있고, 그 결과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 대신에 긍정적인 생각들을 심워줄 수 있다.

특수아동은 종종 학습의 진행 과정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느리고 이해도도 뒤처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특수아동이 미술수업의 한 과제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그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의 확신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보다 더 어려운 학습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미술은 또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표현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미술이 비언어적인 표현 수단의 가장 확실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특수아동들이 수업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구조화할 때, 비언어적 표현수단인 미술이 국어나 수학과목 등과 같은 언어적 방법보다도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특수아동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내용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공감각적 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 특수아동들에게 미술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내적 변화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술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활동은 특수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위한 교육에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다.

V. 결론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미술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통해서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Efland, Freedman, and Stuhr, 1996). 그러므로 특수교육과정에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활동 욕구를 충족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하여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심미적 안정감과 긍정적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미학적 갈구가 있으며, 그들의 욕구를 미학적 표현을 통해서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Blandy, 1991). 국·내외적으로 미술교육은 거의 대부분 시각문화유물과 순수예술품의 창작과 감상에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해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특수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있는 교육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미술교육을 통하여 특수아동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운을 불어일으켜 주고, 미술이라는 시각적 언어를 통하여 그들 내면을 밖으로 표출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미술교육자들이 특수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특수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문헌연구이다. 앞으로 특수아동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Anderson, F. E. (1978). Art for all the children: A creative sourcebook for the impaired child.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Arnheim, R. (1983). Perceiving, thinking, forming. Art Education, 36, 9-11.
- Brubeck, T. (1981). The arts: A great resource for disabled people. American Rehabilitation, 7, 3-6.
- Blandy, D. (1991). Conceptions of disability: Toward a sociopolitical orientation to disability for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32(3), 131 - 144.
- Blandy, D. (1999). A disability aesthetic, inclusion, and art education. In A. L. Nyman & A. M. Jenkins (Eds.),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pp. 34 - 41).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isenhower, J. (2008b, August). [Column for Caucus for Social Theory in Art Education]. NAEA News, 50(4), 15.
- Caraballo, C. & Rodas, J. M. (2008). A disability awareness poster contest at Bronx Community Colleg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 Carter, J.D. & Miller, P.K. (1971). Creative art for minimally brain injured children. Academic Therapy, 1(3), 245-252.
- Disability Studies Quarterly, 28(4).
- Clements, C. B. (1999). Art education and Person-Centered Futures Planning: The dynamic new wave in human services. In A. L. Nyman & A. M. Jenkins (Eds.),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pp. 142 - 154).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fland, A., Freedman, K., & Stuhr, P. (1996). Postmodern art education: An approach to curriculum.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Eisenhauer, J. (2007). Just looking and staring back: Challenging ableism through disability performance art. *Studies in Art Education*, 49(1), 7 - 22.
- Eisenhauer, J. (2008a). A visual culture of stigma: Critically examining representations of mental illness. *Art Education*, 61(5), 13 - 18.
- Gair, S. (1978). Are the arts ready for special education? *Art Education*, 31(7), 13-14.
- Guay, D. M. (1994b).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art classroom: How prepared are we? *Studies in Art Education*, 36(1), 44 - 56.
- Kleege, G. (2006a). Blindness and visual culture: An eyewitness account. In L.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nd ed., pp. 391 - 398). New York: Routledge.
- Lowenfeld, V. (1947) *Creative and mental growth*. New York: Macmillan.
- Mirzoeff, N. (2006a). Blindness and art. In L. J. Davis (Ed.),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2nd ed., pp. 379 - 390). New York: Routledge.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 Papalardo, R. G. (1999). Curricular issues: The visual arts an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A. L. Nyman & A. M. Jenkins (Eds.), *Issues and approaches to art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pp. 42 - 54). Reston, VA: National Art Education Association.
- Wexler, A. (2005). Identity politics of disability: The other and the secret self. *Journal of Social Theory in Art Education*, 25, 210 - 224.
- Wilson, B. (2003). Of diagrams and rhizomes: Visual culture, contemporary art, and the impossibility of mapping the content of art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44(3), 214 - 229.
- Wood, N. E. (1977). Directed art, visual perception, and learning disabilities. *Academic Therapy*, 12(4), 455-462.